

『대승사론현의기』에 나타난 혜균의 실담장(悉曇章)*

강 대 현**

[국문초록]

실담장은 인도등지의 범자와 관련된 음운적 규칙을 설명해 놓은 요약서이다. 한국에서의 실담장은 고려시대 『법계도기총수록』 안에서 실담장이 언급되고 있고, 중세한국의 『진언집』 등에서만 온전한 실담장이 나타나고 있을 뿐, 고대한국에서의 실담장을 언급한 문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 천태밀교의 대성자 안연의 『실담장』에 백제 혜균의 실담장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 당시에 유통되었던 실담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십사음의」는 최근까지 일실본으로 알려져 있었던 문헌의 일부로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실담장(悉曇章)이 아닌 오음표기의 시담장(肆曇章)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문헌에는 『열반경』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1009949).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전문연구원(박사후연수과정)

주제어: 혜균, 실담, 실담장,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 『열반경』, 『실담장』
Hyegyun, Siddham, Siddhavastu, *Daeseungsaronhyeonuigi Sipsaemumui*,
Mahaparinirvanasutra, Annen's *Shittanzō*

에서의 자본14음인 a·ā·i·ī·u·ū·e·ai·o·au·r·r̄·l·l̄ 등을 포함한 ka·kha 등의 50자문을 나타냄으로써 『열반경』의 문자관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담무참, 사령운 등의 문자관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었다. 특히 자본14음 중 a·ā음은 후설의 [a]음이었고, r·r̄·l·l̄음은 입성이었으며, am·ah 2자는 앞의 a와 ā에서 파생된 음으로서, 이 2자는 더 이상의 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궁극의 음이었다. 이러한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의 실담장은 고대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실담장의 한 단면이었으며, 더구나 일본 실담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연의 『실담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혜균의 실담장은 고대일본의 언어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본 실담장 전승의 한 부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에 나타난 실담장이 고대한국에서 유통되고 전승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혜균이라는 고대한국인에 의해 언급된 실담장이 초기 일본 실담학의 고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불교학은 물론 실담학 부분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머리말

일본 『대정신수대장경』 전84권 중 권제54에는 실담범자의 체계를 온전하게 설명한 『실담자기』(悉曇字記, 800년경 간행)를 비롯하여 범자 사전류 등이 실려 있고, 권제84에는 일본 최초의 실담학 총서인 『실담장』(悉曇藏, 880년 간행) 등 일본 학자가 쓴 실담학(悉曇學) 관련 문헌들이 실려 있다. 이 당시 중국은 밀교가 극성에 달했던 시기였으며, 일본은 8세기 이후 통일신라에 유학승들을 파견하는 등 대륙의 선진문물에 대한 수용욕구가 강렬했던 시기였다. 9세기에 들어선 일본은 직접 중국 장안으로 승려들을 보내 천태밀교(天台密敎)를 공부하면서 실담장도 접하게 된 것이다. 곧 실담장은 인도등지의 성명론(聲明論)의 기초 과분이며 범

어 습득을 위한 기초 음운서이므로, 실담범자로 쓰인 중국인 최초의 실담장인 『실담자기』 이전부터 중국에는 실담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특히 『열반경』의 범자50자문에 대한 언어적·사상적 전개는 당시 열반사(涅槃師)는 물론 삼론사(三論師) 사이에서는 중요한 커리큘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담무참(曇無讖385-433), 사령운(謝靈運, 385-433), 그리고 길장(吉藏, 549-623), 고구려의 혜관(慧灌, ca. 6c)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길장과 함께 법랑(法朗, 507-581)의 제자였던 백제의 혜균(慧均)에 주목하였다. 혜균도 길장 못지않은 삼론종(三論宗)의 석학이지만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알려져 있을 뿐 국내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¹⁾

이에 본고에서는 최연식의 교감본(2009)에서도 일실본(逸失本)으로 간주되고 있는 권제11의 「십사음의」(十四音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혜균의 실담장을 살펴볼 것이다. 『대승사론현의기』의 「십사음의」는 『열반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른바 ‘자본14음’(字本14音)을 비롯한 ‘범자50자문’에 대한 수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은 곧 실담장이라는 범자 음운의 언어적 측면에 불교사상적 측면이 결합되어 대승불교 언어철학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이 안연(安然, 841-915?)의 『실담장』(悉曇藏)에서 인용되고 있다.²⁾ 일본 천태밀교의 대

1) 2006년 최연식과 독일 요르그 플라센(Jörg Plassen)에 의해 『대승사론현의기』의 백제찬술설이 제기되었으나, 반대의견도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담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연식 校注(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불평출판사, p. 23.’에서는 2006년 이전 일본의 이토 타카토시(伊藤隆壽)에 의해 발표된 ‘(1969), 『慧均『大乘四論玄義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5,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등에 『대승사론현의기』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잘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고대한국인(백제 혹은 신라)인으로서의 혜균에 초점을 두어, 고대한국인의 저술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실담장 파악에 주력하였다.

2) 안연의 『실담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의 經文에 대해서는, 강대현(2016), 『安然의 『悉曇藏』에 나타난 혜균의 『大乘四論玄義記』 卷第11

성자인 안연의 『실담장』에는 혜균의 실담장을 빈번하게 인용함으로써 일본 실담학 토대의 한 갈래로 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담자기』 찬술 이전부터 중국에서 유통되었던 실담범자의 실담장 이후 안연의 『실담장』 찬술까지의 여러 실담장 파악에 중요한 참고 내지 비교자료가 될 것이며, 『대승사론현의기』의 일실본 중 한 부분의 발견이라는 중요성과 동시에 고대한국인의 저술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설명되는 실담장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실담장 음운론의 기초

불교문헌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실담장(siddhavastu)³⁾은 당대(唐代) 800년 전후, 실담범자로 표기한 실담장인 지광(智廣, 760?-830?)의 『실담자기』가 간행되는데, 이 책에 의하면 실담(悉曇)과 자모(字母)의 개념은 구별된다. 실담은 운모(韻母), 즉 12자의 마다(摩多, mātā, mātrkā)와 4자의 별마다(別摩多)를 가리키고, 자모는 곧 체문(體文, vyañjana)으로서 35자의 성모(聲母)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실담자모라고 하면 중국의 한자에 대한 -인도등지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범자의 기본적 음운을 말하

『十四音義』-『十四音義』의 복원을 위한 序說-,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로 이미 발표하였다.

- 3) “실담은 범자 자모의 명칭 또는 범자 서체의 하나를 말한다. 실담은 범어로서, 한역 하면 悉曇, 七旦, 七曇, 悉談, 肆曇, 悉旦, 悉檀 등으로 음사되어 ‘완성시킨 것’, ‘완전한’, ‘성취한’, ‘홀륭한’ 등의 뜻을 가지는데, 원래는 형용사였지만 이를 명사로 사용한 것이다. 오래전 실담학자들은 이를 ‘성취길상’이라고 번역하였다. (...) 인도에서는 6세의 동자가 6개월간을 배우고 습득하는 자모표의 표제에 실담 혹은 悉地羅窠觀(siddhirastu)라고 써서, 성취길상을 축복하는 의미로 나타내는 자모표의 題號에 썼던 것이 변하여 범자자모 자체를 형용하는 형용어로서 이 명칭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渡邊英明(1933), 『悉曇梵語初學者の爲めに』, 『密教研究』 50,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教研究會, pp. 88-89].”

며, 이들 실담과 자모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되어지는 범자의 음운적 제반규칙 등이 실담장의 주요내용이다.

일본의 마부치 가즈오(馬淵和夫)는, “고대인도의 범자에 대한 발음과 범자의 합성을 학습하기 위해 작성된 도표”⁴⁾를 실담장이라고 함으로써, 실담장은 단지 실담범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실담범자 이전의 문자형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범자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헌상으로는 『열반경』의 범자 50자문을 시작으로 『실담자기』의 범자 51자와 18장, 현장(玄奘, 602-664)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언급하고 있는 12장 등을 실담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담장은 많게는 32장 등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이 일률적이지 않다. 정영사 혜원(淨影寺慧遠, 523-592)과 현장은 12장의 실담장을, 의정(義淨, 635-713)과 지광은 18장의 실담장을, 그리고 실담장을 일본에 처음으로 전파했던 베트남의 Fo-che(佛哲, n.d.)는 14장을, 일본 안연의 스승인 원인(圓仁, 793-864)은 13장을, 입당팔가(入唐八家)⁵⁾ 중의 한 사람인 상효(常曉, ?-865)는 11장을 실담장으로 삼고 있는 등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그들의 실담장은 일률적이지 않고,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도 각기 다르게 전승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

4) 馬淵和夫(2006), 『悉曇章の研究』, 東京: 勉誠出版, p. 1.

5) 입당팔가는 最澄(767-822), 空海(774-835), 常曉(?-865), 圓行(799-852), 圓仁(794-864), 慧運(800-871), 圓珍(814-892), 宗叡(808-884)를 말한다.

6) 다음은 ‘강대현(2015), 『『悉曇字記』의 第18章 孤合之文 연구』, 『불교학연구』 45, 불교학연구회, pp. 244-245.’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그림이다.

혜원	12장	初章si(ḥddhām ^ḥ +50자모=52자, 제2ka ^ḥ 章, 제3ṅka ^ḥ 章, 제4ka ^ḥ ·kha ^ḥ ga ṅ·gha ^ḥ +33자+12음훈, 제5ca ^ḥ ·cha ^ḥ ·ja ^ḥ ·jha ^ḥ +33자+12음훈, 제6ta ^ḥ ·tha o·da ^ḥ ·dha ^ḥ +33자+12음훈, 제7ta ^ḥ ·tha ^ḥ ·da ^ḥ ·dha ^ḥ +33자+12음훈, 제8pa ^ḥ ·pha ^ḥ ·ba ^ḥ ·bha ^ḥ +33자+12음훈, 제9ya ^ḥ +12음훈, 제10ta ^ḥ +12음훈, 제11la ^ḥ +12음훈, 제12va ^ḥ +12음훈
현장	12장	그의 『대당서역기』(T. 2087, 876c9-17)에 “(梵天所製原始垂則 四十七言也 …) 而開蒙誘進先導十二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12장을 파악할 수 없다.
의정	18장	그의 『南海寄歸內法傳』(T. 2125, 228b19-20)에 “本有四十九字 共相乘轉 成二十八章”이라고 하여 지광의 『실담자기』와 같은 18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불철	14장	제1a ^ḥ 장, 제2ka ^ḥ 장, 제3kya ^ḥ 장, 제4kra ^ḥ 장, 제5kla ^ḥ 장, 제6kva ^ḥ 장, 제7kma ^ḥ 장, 제7kṅa ^ḥ 장, 제9kna ^ḥ 장, 제10kna ^ḥ 장, 제11rka ^ḥ 장, 제12ska ^ḥ 장, 제13ktya ^ḥ 장, 제14klyā ^ḥ 장
원인	13장	제1ka ^ḥ 장, 제2kya ^ḥ 장, 제3kra ^ḥ 장, 제4krya ^ḥ 장, 제5kla ^ḥ 장, 제6kva ^ḥ 장, 제7kna ^ḥ 장, 제8rka ^ḥ 장, 제9rkra ^ḥ 장, 제10kma ^ḥ 장, 제11ska ^ḥ 장, 제12ṅka ^ḥ 장, 제13'脫'字장
상호	11장	제1ka ^ḥ 장, 제2kya ^ḥ 장, 제3kra ^ḥ 장, 제4kla ^ḥ 장, 제5kva ^ḥ 장, 제6ṅna ^ḥ 장, 제7kma ^ḥ 장, 제8kna ^ḥ 장, 제9kṅa ^ḥ 장, 제10ska ^ḥ 장, 제11ṅka ^ḥ 장

[그림 1] 실담장의 여러 형태

이와 같은 실담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범자의 음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a · ā · i · ī · u · ū · e · ai · o · au · am · ah
- ② ka · kha · ga · gha · ṅa || ca · cha · ja · jha · ṅa || ta · tha · da · dha · ṅa || ta · tha · da · dha · na || pa · pha · ba · bha · ma
- ③ ya · ra · la · va · śa · ṣa · sa · ha · kṣa · (llam)
- ④ ṛ · ṝ · ḷ · ḹ

①은 통마다(通摩多) 12음, ②는 체문(體文) 25자, ③은 편구성(遍口聲) 9자 (내지 10자), 그리고 ④는 별마다(別摩多) 4음으로서, 이들 모두를 합한 범자 50자 내지 51자를 통칭하여 통상 ‘50자문’(50字門)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③의 편구성 10자 중 [llam]은 [la]+[la]+[am]⁷⁾의 결합으

7) 산스크리트는 모든 자음에 모음이 함께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자음과 자음이 결합

로, 같은 자모의 결합[同體重字]이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범자의 기본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담범자에 대한 중국 최초의 요약서라고 할 수 있는 지광의 『실담자기』에서는 [llam]을 포함한 총 51자의 음운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실담범어의 자모와 자체(字體)를 배열하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결합방법 등을 기록한 하나의 형식적·조직적인 음운서”⁸⁾, 그리고 “범어를 배우는 가장 초급의 교재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 범문자모와 아울러 이들이 병합하고 연성(連聲)하는 등의 기본적인 어음(語音)과 어법(語法)을 알게 해주는 것”⁹⁾을 실담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담장이 범자 음운의 결합을 통하여 실제로 범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장을 지칭하는 개념이면서 나아가 범자 50자문의 기본적인 음운의 자의(字義)를 사상적·이론적으로 해설해 놓은 것만으로도 실담장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그것은 범자 50자문을 통한 각각의 언어성과 사상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완전한 언어로서의 범어를 배우고 습득하여야 할 목적의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담장의 실

할 때는 가장 뒤쪽에 위치하는 모음 이외의 앞의 모음들은 제거해야 한다. 이를 나타내는 실담범자 반체표기는 /ᄃ/이며, 怛達[tathat], halanta 또는 virama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 반체는 자음과 자음이 결합할 때는 표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음절의 마지막에 위치할 때는 그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hūmphat [ᄃᄃᄃ]의 마지막 음운인 [ta]에서는 [ᄃ] 아래에 /ᄃ/를 결합함으로써 /a/를 생략하고 /t/로 표기하여 入聲으로 빨리 끝 단계 [tak]과 같이 발음한다. 이를 ‘halanta ᄃ’ 또는 ‘virama ᄃ’라고 한다. 가령 위 [kṣa]ᄃ는 원래 [ka]+[ṣa]의 결합이지만 이를 풀어보면 [ka]+/ᄃ/+[ṣa]이다. 따라서 본문의 [llam]ᄃ 또한 [la]+/ᄃ/+[la]+[am]의 결합이다[智廣撰, 『悉曇字記』, T. 2132, p. 1187b16-19 참조; 강대현(2015), pp. 258-259 참조; Pandey Anshuman (2012), “Proposal to Encode the Siddham Script in ISO/IEC 10646”, ISO/IEC JTC1/SC2/WG2 N4294 L2/12-234R. August 1, 2012, <http://std.dkuug.dk/jtc1/sc2/wg2/docs/n4294.pdf>, p. 3 · p. 5 참조]. 본문에서는 결합의 원리만을 표기한 것이다.

8) 渡邊英明(1933), 『悉曇梵語初學者の爲めに』, 『密教研究』 50,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教研究會, p. 89.

9) 周廣榮(2004), 『梵語‘悉曇章’在中國的傳播與影響』,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p. 6.

답자모표 표지제목에 실담 혹은 실지라솔도(悉地羅窠觀, Siddhirastu)¹⁰⁾라고 써서 범자 음운의 통달에 대한 성취길상을 바랬던 것이다.

3. 『대승사론현의기』의 실담장

주지하듯이 『대승사론현의기』는 백제 혜균이 쓴 삼론학 논서이다. 우선 『대승사론현의기』의 찬술자 혜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자료에는 그에 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세의 불교문헌에 그에 관한 언급이 종종 보이지만 길장과 함께 범랑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행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¹¹⁾고 함으로써, 혜균에 대한 일본의 문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일본 천태밀교의 대성자인 안연의 『실담장』에서 당시 실담범자 음운에 관한 동아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도 있었으며, 특히 『대승사론현의기』 중 기록에만 나타날 뿐 그 내용이 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십사음의」가 집중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²⁾ 요컨대 「십사음의」

10) 실담라솔도(悉曇囉窠觀, Siddhām rastu)라고도 한다[각주 3]참조; 兒玉義隆(1997), 『梵字必攜』, 大阪: 朱鷺書房, p. 15 참조.

11) 최연식 校注(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불광출판사, p. 54.

12)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에서 현재 일실본으로 알려져 있는 권제11의 「십사음의」와 「사실단의」가 『대정신수대장경』 제84권 실담부의 여러 문헌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 문헌을 정리해보면, 淳祐集, 『悉曇集記』, T. 2705, pp. 483a28-484c18, 安然抄, 『胎藏金剛菩提心義略問答鈔』, T. 2397, p. 475a22-23에서도 “三論大乘四論玄義記云 是三兄弟如次所作(云云).”으로, 明覺撰, 『悉曇要訣』, T. 2706, p. 516c12-13에서도 “慧均玄義記云 囉字舊反荷羅(文).”로, 日蓮撰, 『觀心本尊抄』, T. 2692, p. 275a8-9에서도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云 沙者譯云六 胡法以六爲具足義也.”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혜균 내지 『대승사론현의기』를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헌은 주로 삼론학 내지 실담학 관련 문헌이다.

는 당시의 동아시아 실담장의 한 지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십사음의」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승사론현의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자. 다음은 최연식(2009)의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다.

- 卷1 初章中假義 (신발견)
- 卷2 八不義 (신발견)
- 卷3 二諦義 (續藏經수록, 후반부 결락)
- 卷4 夢覺義 (逸失), 感應義 (續藏經수록)
- 卷5 十地義 (逸失), 斷伏羲 (續藏經수록), 金剛心義 (續藏經수록)
- 卷6 佛性義 (續藏經수록)
- 卷7 佛性義 (續藏經수록, 전반부 결락)
- 卷8 五種菩提義 (逸失)
- 卷9 二智義 (續藏經수록)
- 卷10 成壞義 (逸失)
- 卷11 開路義 (逸失), 十四音義 (逸失), 四悉檀義 (逸失)**
- 卷12 三乘義 (續藏經수록), 莊嚴義 (續藏經수록), 三位義 (續藏經수록), 三寶義 (逸失)

(그 밖에 涅槃義, 法身義, 淨土義, 般若義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수록되어 있던 卷數는 확인되지 않음)¹³⁾

이처럼 『대승사론현의기』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들 12권 전체에서 일실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승사론

13) 伊藤降壽(1971), 『『大乘四論玄義』の構成と基本的立場』, 『駒澤佛敎學論文集』 2, 東京: 駒澤大學佛敎學部, p. 143에서 인용한 부분을 ‘최연식(2009), pp. 26-27’에서 재인용하였다.

14) 최연식(2009), p. 26에서는 “『대승사론현의기』의 체계는 대부분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2권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후대에는 14권본으로 편집된 경우도

현의기』의 전12권 중에서 해당 권 전체가 일실본으로 알려진 부분이 권제8[오중보리의], 권제10[성괴의], 그리고 권제11[개로의·십사음의·사실단의] 등이다. 이 중 특히 권제11의 「십사음의」의 ‘14음’은 『열반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본십사음’(字本十四音)과 관련된다.

우선 안연의 『실담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 중 실담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해균의 『무의무득대승사론현의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음을 자세히 보면, (….) 온 세간에서는 반드시 14음으로서 배움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이것이 문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肆曇
 章에서 聲明論은 문자론 등과 함께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¹⁵⁾

라고 하였다. 즉 모든 언어의 근본음으로서 14음¹⁶⁾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고, 언어학, 문법, 음소 등의 성명론은 문자에 관한 제반의 논의와 함께 근본적으로 시담장(肆曇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肆曇(siddham)¹⁷⁾은 실담의 오음(吳音) 표기이다. 즉 siddham의 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15) 安然撰, 『悉曇藏』, T. 2702, pp. 368c23-369a9, “慧均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云 尋十四音者 (….) 舉世通學必以此爲端 是文字之樞要也 故肆曇章中生出聲論與字論等根本也.”

16) 이 14음은 고대 범어의 根本音으로서 사실상 16음이다. 즉 通麼多 a·ā·i·ī·u·ū·e·ai·o·au·am·ah 12음과 別麼多 ṛ·ṝ·l̄·l̄̄ 4음의 합을 말한다. 여기서 14음이란 기본적으로 a·ā·i·ī·u·ū·e·ai·o·au 10음과 ṛ·ṝ·l̄·l̄̄ 4음을 포함하고, am·ah 2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14음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14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대현(2013), 『『悉曇字記』에 나타난 12摩多와 그 음의 長短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37, 불교학연구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17) 시담(肆曇)을 『說文解字』를 근거로 반절로서 나타내보면, ‘肆(息利切)曇(徒舍切)’이다. 따라서 당시의 발음을 국제음성부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로 재구해보면 [sidAm]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肆’의 발음이 현재 한국의 [sa]가 아니라 [si]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음(漢音)은 실담(悉曇, 중천축계열의 음]이고, 오음 표기는 시담(肆曇, 동천 또는 남천축계열의 음]으로서,¹⁸⁾ 이들은 같은 개념의 다른 발음이다. 따라서 혜균은 중천축 이외의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범어의 발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실담장』이 실려 있는 일본 『대정신수대장경』 제84권의 ‘실담부’에서는²⁰⁾ 이외에도 일본에서 결집된 실담학 관련 많은 문헌들이 수

- 18) 오음은 대략 5-7세기 전후에 중국의 위진남북조 혹은 일본 야마토시대(3c말-7c중)부터 후기 아스카시대(6c말-8c초)에 중국 장강 하류 강남일대[또는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가 점령한 지역]의 語言으로서, 고구려와 백제 등지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달되었다. 오음은 강남을 기원으로 하는데, 불교에서는 물론 생활관계어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한음은 대략 7-9세기 전후에 중국 수·당, 혹은 일본 나라시대 후기 헤이안시대 초기에 견당사와 일본유학생 등이 전래한 한자음이다. 이 음은 주로 견당사와 유학생 등이 머물렀던 장안, 낙양 등지의 북방음으로, 곧 중국 중원 지방의 발음을 말하는데, 이를 한음이라고 한다[曹瑞泰(2007), 『中日語言文字與語音發展過程之對比分析』, 『通識研究集刊』 11, 桃園: 開南大學 通識教育中心, p. 12].
- 19) 일본에서 한음과 오음은 범자의 발음과 표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金光明最勝王經』에는 옛 표준 중국음을 이용한 義淨(635-713)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呪文은 오음으로 읽기를 선호했다. (당시 일본불교에서는) 오음으로 읽어야 할지 한음으로 읽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奈良 불교의 커리큘럼에 없었다는 것이다. 9세기의 나라 불교는, 呪術의 전승을 전 시대에서 이어받지 못했던 것이다[小林明美(1984), 『吳音と漢音』, 『密敎文化』 145, 和歌山: 高野山大學 密敎研究會, p. 93].”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일본불교에서의 오음은 불교를 대표하는 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현실적으로도 고대일본에서는 “범자를 쓸 때 그 음을 적으면서 오음을 많이 썼고 한음은 거의 쓰지 않았다[新井白石(1760), 『同文通考』 3, 青森: 弘前市立圖書館所藏本, p. 12.]”고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입당팔가가 당으로 유학을 간 시기인 9세기의 오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단순한 발음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불경의 발음은 오음이 많고 유경의 발음은 한음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통의 근원에 고대한국 삼론학자의 불교전파가 있었으며, 혜균의 실담장 또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일본의 오음전파설에 대해서는, 『강대현(2015), 『吳音 일본전파설과 관련된 신라 金禮信에 대한 논의』,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이성근(1996), 『吳音聲調의 朝鮮半島 經由說에 對한 一考察』, 『일본학보』 37, 한국일본학회; 『이성근(1998), 『日本國內의 字音의 傳來와 定着—吳音·漢音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6,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록되어 있다. 9세기경 중국으로 천태밀교를 수학하기 위하여 입당하였던 이른바 입당팔가 등의 인물로부터 자운음광(慈雲音光, 1718-1804) 등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실담학 문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실담장의 범자 음운은 안연이 『실담장』에서 유독 많은 인용[21회 이상] 내지 초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²¹⁾ 이를 통하여,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 밝힌 혜균의 실담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 실담학에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의 구성

그렇다면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 대한 안연의 『실담장』에서의 인용 내지 초록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먼저 안연의 『실담장』에, “『무의무득대승사론현의기』 권제11의 「십사음의」에는 ‘제1明大意’, ‘제2論字本’, ‘제3釋五十字’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²²⁾라는 언급이 있다. 즉 「십사음의」에는 ①「십사음의」의 대의를 밝히고 난 뒤, ②『열반경』에서 말하는 이른바 ‘자본14음’ 등 모든 글자의 근본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③범자 50자문에 대한 한자독음과 범자 각각의 자의 및 범자를 읽기 위한 반절법(反切法) 표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대승사론현의기』 제11권 「십사음의」를 시작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범자 14음 및 50자문이 단순한 문자적 개념을 넘어선 사상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²³⁾

20) 『대정신수대장경』 제84권은 續諸宗部 15와 悉曇部の 合卷으로 되어 있다.

21) 강대현(2016), p. 446.

22) T. 2702, p. 443b17-19,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十一云十四音義 有三重 第一明大意 第二論字本 第三釋五十字.”

다음에서는 안연의 『실담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의 내용을 ①, ②, ③의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4.1. 第一明大意[14음의 대의를 밝힘]

먼저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는 당시 『열반경』 등에서 설해지고 있었던 ‘14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4음의는 『열반경』 「문자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자품」을 보면, 외국의 음과 (글)자는 일반적으로 50이다. 자의 음과 더불어 모두 통틀어 보면 50자에 한정된다. 두루 모든 자를 또한 음이라고도 하는데, 음은 모든 자의 근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자 중에서 14자를 음으로 삼은 것이다. 나머지를 다만 자라고 하는 것은 음과 자의 다름을 구별함으로써, 음을 근본으로 하여 능히 자를 만들 수 있으나, 자는 음의 근본이 될 수 없고 음으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이다.²⁴⁾

23) 불교경전에서 범자에 대한 사상성의 부여는 『반야경』의 42자문[a · ra · pa · ca · n a · la · da · ba · ḍa · ṣa · va · ta · ya · ṣṭa · ka · sa · ma · ga · tha · ja · sva · dha · śa · kha · kṣa · sta · ña · rtha · bha · cha · sma · hva · tsa · gha · ṭha · ṇa · pha · ska · ysa · śca · ṭa · dha]에서부터 시작되어 『화엄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42자문은 각각의 범자에 함의된 반야공성을 궁극의 반야바라밀과 상응하는 수행덕목으로서의 자문이었고, 이후 『열반경』 50자문에서는 佛性·如來藏 등의 사상을 각각의 범자에 대입시켰는데, a자는 ‘三寶義 내지 ‘不破壞’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밀교에까지 전해진다. 체계적인 밀교경전의 효시인 『대일경』에서는 a자가 나머지 11음인 ā · i · ī · u · ū · e · ai · o · au · am · ah를 포괄하여 ‘一切諸法本不生故’로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범자 각각이 함의하고 있는 사상적 전개는 『대일경』에서 眞言教法으로 귀결되어진다. 『십사음의』의 ① · ② · ③은 제목에서 이미 『열반경』 50자문의 사상성을 논하거나 해석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24) T. 2702, p. 443b19-24, “(第一明大意) 十四音義出涅槃經文字品也 今文字品中明 外

즉 혜균은 『열반경』의 「문자품」에서 설해지고 있는 14음을 포함한 총 50자에 대해서 음과 자의 같음과 다름을 밝혀 14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총 50자의 범자를 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중 특히 14음을 근본적인 음이라고 하였는데, 50자 중에서 14음은 모든 자와 결합하여 수없이 많은 자를 만들어 내고 일체의 개념을 생성해 내지만 자는 음이 없이는 따로 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4음은 세간은 물론 출세간 언어의 근본으로서, 자에 14음의 모음이 결합하여 수 없이 많은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혜균은, “따라서 『열반경』에서 말하기를, 자란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항상하여 흘러가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열반을 들어 반자(半字)의 이치로 해석하였다. 이에 14음을 예전의 반자에 비유해 보면, 14음이 자의 근본으로서 능히 모든 자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사상을 함의하고 있어[所詮],²⁵⁾ 이음과 [만자(滿字)를 이루어] 대열반에 상주하므로 항상하여 사라지지 않음과 같다.”²⁶⁾라고 하였다. 모든 자는 반자[열반]로서, 만자의 대열반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14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14음은 그 자체가 불성이면서 여래장으로서, 일체중생이 불성을 보고 대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된 요소인 것이다.

다음으로 혜균은 14음 가운데 a단아(短阿)로 말미암은 ā장아(長阿) 등

國音字凡有五十 字之與音皆得通目冠於五十 普皆是字亦得是音 皆得爲諸字本 而就五十中十四名爲音 餘但名曰字者 以欲別異能 音則是本 能生字 字非音本 從音而生.”

25) 14음 자체의 所詮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a·ā·i·ī·u·ū·e·ai·o·au·r·ī·l·l̄ 등 14음 각각이 자체에 이미 자의를 포섭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a는 ‘本不生’, ā는 ‘寂靜(虛空)’의 뜻을 원래부터 지니고 있어서 14음은 물론 50자문마저도 모두가 각각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所詮에 대비되는 개념이 能詮이다. 대승불교의 반야공사상을 잘 설명해주는 대승불전의 문자 등 모든 방편을 能詮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6) T. 2702, p. 443c12-16, “故經云 所言字者 名曰涅槃 常故不流 舊云 舉此涅槃以釋半字之義 故今開此十四音 得喻於昔日半字者 此十四音爲字根本 能流出諸字 亦遠有所詮 乃至大涅槃常故不流等也.”

의 13음을 들어 14음의 이치를 설하는데, 먼저 a아(阿)에 대해서는,

『대품반야경』의 자문에서 설해지는 것처럼,²⁷⁾ 阿提는 ‘初’로 번역되고, 阿耨波提를 번역하면 ‘不生’이다.²⁸⁾ 문득 ‘阿’를 들으면 이내 ‘不生’을 깨우칠 수 있다. 따라서 『열반경』에서 말하기를, 短阿는 파괴되지 않는 것[不破壞]이다. 파괴되지 않는 것은 三寶라고 한다. 오직 하나의 ‘阿’만 들어도 초연해져서 삼보가 파괴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14음으로서 예전의 偏敎를 비유하고 깊은 大乘圓敎의 상주를 잘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²⁹⁾

여기서 a아는 ādi (阿提)와 anutpatti (阿耨波提)의 a아로서, ‘일체제법은 생겨난 바가 없는 본연의 것’인 불성으로서의 여래장을 말하며, 절대 파괴되지 않는 삼보와 같은 것이며, 대승원교를 지지하고 있는 근원이다. 즉 14음은 이러한 a아자로부터 연유하므로, 마땅히 금강과도 같이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삼보로서의 a아에는 14음의 나머지 13음도 같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4음 각각을 편교(偏敎), 즉 장교(藏敎), 통교(通敎), 별교(別敎) 등에 이용한 부분적인 가르침이었다면 구경에는 a아자의 원만한 원교(圓敎)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³⁰⁾

27) 여기서 설해지는 자문이 42자문다라니이다. 鳩摩羅什譯, 『摩訶般若波羅蜜經』(T. 223, p. 256a6-b28)에서는 ‘a阿字門 一切法初不生故’로부터 ‘dha荼字門 入諸法邊竟處故不終不生’까지 총 42자의 범자 각각에 반야공성을 대입하여 설해지고 있다 [각주 23]참조.

28) 원전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龍樹造·鳩摩羅什譯 『大智度論』, T. 1509, p. 408b16-17, “阿提秦言初 阿耨波陀秦言不生.”

29) T. 2702, p. 443c16-22, “如大品經字門中說者 若言阿提 翻爲初 阿耨波提翻爲不生 今止聞阿 乃得不生解也 故經云 短阿者 不破壞故 不破壞者 名曰三寶者 但聞一阿 超然乃得三寶不破壞解 故以十四音 喻於昔日偏敎 遠詮大乘圓敎常住.”

30) 曇無讖역의 『大般涅槃經』에 따르면, ‘a唵: 不破壞故·ā阿: 名阿闍梨·ī億: 佛法·ī伊: 佛法·u郁: 於諸經中最上最勝·ū優: 喻如牛乳·e擘: 諸佛法性涅槃·ai野: 如來義·o烏: 名煩惱義·au炮: 大乘義·īīī: 佛法僧及以對法’이라고 하였다. 이 중

다음으로 ā장아에 대해서는,

長阿는 阿闍梨로 일컫는다. 세간에서는 ‘聖’을 이르는 말이다. ‘聖’이란 ‘正’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正’을 저들은 阿闍梨라고 한다. 이것은 ‘正行’을 이르는 말이다.³¹⁾

즉 ā장아는 곧 아사리(阿闍梨, ācārya)의 ā로서, 세간에서 출세간을 부르는 ‘성’(聖: ārya)이며, 이는 곧 ‘정’(正: sat, samyak)이다. 따라서 ‘정’을 아사리라고 하므로, 아사리의 모든 언행은 바로 ‘정행’(正行: ācārya, samyak-pratipatti)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붓다의 ‘정행’과 같이 수행자 또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근본에는 ā장아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報恩³²⁾이 말하기를, 붓다께서 득도한 밤부터 열반에 든 밤에 이르기까지³³⁾ 설했던 일체의 문자는 모두 음을 통한 설법[音敎]에서 비롯되었고, 聞·思·修라는 것은 그 음에서 나온 글자[音境]에서 개념지었다. 그렇게 연유된 13자의 규칙은 시중에 통용된다. 일체의 14음은 모든 음을 만들어 내기에 이 규칙은 14의 가르침이며, 연유된 13자의 글자는 곧 13가지 설법의 상인 것이다.³⁴⁾

a嚧자가 삼보로서 금강과도 같이 파괴되지 않는 불성이며 여래장인 것이다. 즉 편교의 13음은 대승원교의 a嚧자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1) T. 2702, p. 443c27-29, “長阿者下釋 長阿者 云阿闍梨 於世間中得名爲聖 聖者名爲正 正者彼云阿闍梨 此云正行也.”
- 32) 報恩寺의 持法師을 가리키지만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道宣(596-667)撰, 『續高僧傳』, T. 2060, p. 531c2-13에는 “釋智琰(…) 時年十六 即日出都 聽報恩持法師講成實論.”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林子青(2000), 『菩提明鏡本無物 - 佛門人物制度』, 台北: 法鼓文化, p. 126’에 의하면, 智琰(564-634)은 수말 당초 성실논사로서 蘇州 通玄寺 玄璩의 제자로 출가하여 報恩寺持法師에게 成實論을 청하였던 사람이다. 따라서 보은은 5-6세기경 성실론의 대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33) 珍海撰 『三論玄疏文義要』, T. 2299, p. 218b17-20, “云二夜經者 見大智論此應是得道夜涅槃夜爲二夜也”.

즉 붓다께서 생전에 설했던 모든 가르침은 음을 통한 설법이었으며, 그 설법을 통하여 정의되어진 일체의 수행은 삼혜[三(所成)慧, trividhā prajñā]라는 붓다의 설법을 경계지은 것[글자]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문혜(聞慧, śrutamayī prajñā)는 음의 설법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사혜(思慧, cintāmayī prajñā) · 수혜(修慧, bhāvanāmayī prajñā)는 그러한 설법이 정의된 경계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⁵⁾ 따라서 경전 등을 통하여 문혜를 깨우친 다음 사혜와 수혜로서 나아가 중국에는 수혜의 바른 선정으로서 미혹을 끊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a아를 포함한 14음은 붓다의 설법이면서 일체의 대승경전을 구성하는 모든 자의 기본이며, a아로부터 연유된 13음은 13가지의 각기 다른 설법의 상을 보여주듯이 일체의 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의 근본인 14음과 이를 포함한 50자문은 인도등지의 음과 자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근본에는 14음을 음이라고 지칭하면서 나머지 자와 구별하였다. 즉 모음적 역할을 하는 14음으로부터 자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14음이 결합하지 않으면 완전한 문자[滿字]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14음 중에서도 특히 a아는 ‘초불생’ 내지 ‘본불생’이라는 명언 이전의 원리를 내포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괴되지 않으며,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는 여래의 속성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a아로부터 연유한 ā장아 등의 13음은 일체의 경전을 구성하는 능전적 · 소전적 여래의 가르침을 완성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대열반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34) T. 2702, pp. 443c29-444a4, “報恩云佛從得道夜至泥洹夜 凡有所說一切文字 皆從音教生 聞思修從音境生 其所出十三字則通用始終 一切十四音 本未能出之音 則是十四教 所出十三字 即是十三境”

35) T. 2702, pp. 444a-6, “聞惠從音教生 亦思修從音境生也.”

4.2. 第二論字本[글자의 근본을 논함]

다음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의 두 번째 단락인 ‘第二論字本’에서는 14음 등 ‘모든 글자의 근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14음의 근본을 비롯한 범자 38자에 대한 각각의 한자독음 및 이들 자의 이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12음과 자본 14음의 관계를 설명한다.

둘째로 글자의 근본을 밝힌다. 報恩은 ①涅音 ②槃音음을 14음이라고 하였으나, 이와는 다른 肆曇 2음도 있다. ①短阿音 ②長阿音 ③短伊音 ④長伊音 ⑤短憂音 ⑥長憂音 ⑦啞音 ⑧野音 ⑨烏音 ⑩炮音 ⑪菴音 ⑫痾音에서 이 12음을 자로 삼고 근본음으로 쓰는 데에는 같거나 다른 견해가 있다. 報恩寺의 持法師가 말하는 바와 같이 ①涅音 ②槃音 양음이 공히 자의 근본으로 쓰인다면 나머지 12음도 각각 근본으로 하고 지금의 12와 같이 각각을 근본으로 써야 한다.³⁶⁾

즉 보은은 ①涅[nir] ②槃[vāṇa]과 ①a ②ā ③i ④ī ⑤u ⑥ū ⑦e ⑧ai ⑨o ⑩au ⑪am ⑫ah 등을 모두 합하여 14음이라고 하였는데,³⁷⁾ 이는 14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혜균이 먼저 밝히고 나서 그의 14음에 대한 정의를 도모코자 한다. 즉 “(진제)삼장이 말하기를, 시담(siddham)은 범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찬탄하는 말의 총칭이다.”³⁸⁾

36) T. 2702, p. 444a21-28, “第二明字本 報恩解云 十四音者 第一涅音 第二槃音也 今謂不然 若肆曇二音者 第一短阿音 第二長阿音 第三短伊音 第四長伊音 第五短憂音 第六長憂音 第七啞音 第八野音 第九烏音 第十炮音 第十一菴音 第十二痾音 然此十二音爲字本有同有異 如持法師云 第一第二兩音共作字本 所餘十二音 各作本今同十二各作本也.”

37) 보은의 14음에 대한 정의는 安然撰 『悉曇藏』, T. 2702, p. 377b6-7에서도 “三報恩云 一涅音 二槃音 三短阿音 四長阿音乃至第十四痾音也(爲梁武解).”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구절에서와 같이 열반 2음은 시담 2음과 마찬가지로 여래의 성어(聖語) 전부를 찬탄하는 구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담은 ‘성취’, ‘길상’의 뜻을 가져서 모음 12음을 찬탄하고 봉행함으로써 끝내는 불법을 성취하게 되는 길상의 불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열반이나 시담은 14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①a로부터 ①am ①ah까지의 12음을 모두 자본으로 삼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곧 ①am ①ah음이 이 자본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³⁹⁾

이어서 혜균은 12음에 대한 한자독음과 글자의 이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①短阿音: 하나의 본체인 삼보는 금강과도 같이 파괴되지 않음과 같은 글자로서 그것이 근본이므로 곧 모든 글자는 短阿로부터 생겨난다.

②長阿音: 계를 힘써 지키고 방편을 행함에 그치지 않음과 같은 글자인 것이 그 근본이다.

38) T. 2702, p. 444b7-9, “三藏云 肆曇無詮法 直總嘆語也.”

39) 자본 14음의 14개 글자의 정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안연의 『悉曇藏』, T. 2702, pp. 378c13-379c7에서 정리한 10家を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宗師(僧宗, 438-496)는 書缺 2字를 제외하고 오직 12자만이 있다고 한다. ② 招提[招提寺慧(=白琰, n.d.)]는 悉曇 2字만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③ 梁武帝(r. 502-549)는 涅槃 2字만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④ 開善(開善寺智藏, 458-522)은 菴과 靨를 제외하고 魯 등 4자를 취하여 14이라고 한다. ⑤ 莊嚴(莊嚴寺僧旻, 467-527)은 12를 6, 5·5를 5, 囉·和를 1, 羅·沙·娑·訶를 1, 魯 등을 1로 하여 도합 14음이라고 하였다. ⑥ 治(=治)城(治城寺智秀, 440-503)은 兩兩하여 6, 5·5를 5, 3·3을 3으로 하여 도합 14음이라고 하였다. ⑦ 河西(法朗, 507-581)는 12가 곧 12음이고, 뒤의 4자를 2음으로 하여 앞의 12음과 합하여 14음이라고 하였다. ⑧ 北遠(淨影寺慧遠, 523-592)는 12자는 ‘生字音’이고 魯 등은 ‘呼字音’이다. 곧 이로서 14음을 갖추었다. 이 중에는 菴과 阿가 제외된다. ⑨ 貞觀寺(眞雅, 801-879)는 12에 다시 長聲 暗과 靨를 더하여 14음으로 하였다. ⑩ 和上(圓仁, 793-864)은 5·5를 5, 9字를 9로 하여 14음이라고 하였다. 이들 중에서 ④와 ⑧의 설이 일반적이다. 우선 am과 ah를 제외하고 r̥ ! !̥ 4음을 포함시켜 14음인 것이다.

③短伊音: 佛法의 梵行은 청정하고 때가 묻지 아니하여 마치 만월과 같이 샷됨과 바름의 양설 등을 분별함과 같은 글자인 것이 그 근본이다.

④長伊音: 불법은 미묘하여 증득하기 어려우나 능히 자재롭게 증생을 위하여 널리 대승방등경전을 설하여 질투를 끊고 모두 그 상태를 변하게 하는 길상과도 같은 글자인 것이 그 근본이다.

⑤短憂音: 대열반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수승하므로 여래의 성품에 대하여 二乘들은 알 수 없음과 같은 것이 글자의 근본이다.

⑥長憂音: 여래의 성품은 우유와 같아서 어떤 맛보다도 뛰어나다. 만일 이를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연민하여 여래의 비밀스러운 法所에서 설하는 무아법의 셈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함과 같은 것이 글자의 근본이다.

⑦啞音: 제불의 법성은 열반과도 같은 글자라는 것이 그 근본이다.

⑧野音: 여래의 일거수일투족은 일체의 중생에게 불이익이 없게 함과 같은 글자라는 것이 그 근본이다.

⑨烏音: 여래가 끊은 일체의 번뇌와 오염과도 같은 글자라는 것이 그 근본인데, 곧 많은 글자는 이러한 烏音으로부터 유출된다.

⑩炮音: 대승의 문맥과 이치와도 같은 글자라는 것이 그 근본이다.

⑪菴音: 능히 모든 청정하지 못한 것을 차단하고 불법 가운데에서 능히 모든 금은보화를 습득할 수 있음과 같은 글자라는 것이 그 근본이다.

⑫痾音: (대승은) 수승한 탈 것의 이치와도 같은 글자라는 것이 그 근본이다.⁴⁰⁾

40) T. 2702, pp. 444b8-444c2, “若是第一短阿音 則爲一體三寶譬如金剛不可破壞等字作本 即是如此多字 從短阿生也 若是第二長阿音 則爲戒勸止行方便不盡等字 作本也 若是第三短伊音 則爲佛法梵行清淨無垢譬如滿月分別邪正兩說等字作本也 若是第四長伊音 則爲佛法微妙者 深難得 而能自在 爲諸衆生 廣說大乘方等經典爲阿嫉妬悉能令變成 吉祥等字作本義也 若是第五短憂音 則爲大涅槃經 於諸經中 最上最勝 及如來之性二乘所不能知等字作本也 若是第六長憂音 則爲如來之性譬如牛乳 諸味中上若有誹謗 當知是人者可 憐愍遠離如來祕密之藏說無我法計等字作本義也 若是第七啞音 則爲諸佛法性涅槃等字作本也 若是第八野音 則爲如來進止屈申舉動無

이처럼 ①a ②ā ③i ④ī ⑤u ⑥ū ⑦e ⑧ai ⑨o ⑩au ⑪am ⑫ah에 대한 자의 등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①과 ⑨의 자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은 모든 음성 내지 문자의 기원적 성격을 말함으로써, 후대 ‘阿字觀’(아자관)의 가장 오래된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⑨는 중생의 번뇌와 관련된 모든 명언의 원인이 ⑨o烏音(오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o음의 일반적인 자의가 바로 폭류(瀑流)를 뜻하므로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글자를 끊임없이 생겨나는 번뇌에 비유한 것이다.

다음으로 “38음을 근본으로 하여 35자가 생성되는 것을 논한다. (…)”⁴¹⁾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38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報恩이 말하기를, ①迦音 (…) ②佞音 (…) ③輕音伽音 (…) ④重音伽音 (…) ⑤俄音 / ⑥遮音 (…) ⑦車音 (…) ⑧輕音闍音 (…) ⑨重音闍音 (…) ⑩若音 / ⑪吒音 (…) ⑫佞音 (…) ⑬輕音荼音 (…) ⑭重音荼音 (…) ⑮拏音 / ⑯多音 (…) ⑰他音 (…) ⑱輕陀音 (…) ⑲重陀音 (…) ⑳那音 / ㉑波音 (…) ㉒頗音 (…) ㉓輕婆音 (…) ㉔重婆音 (…) ㉕摩音 / ㉖耶音 (…) ㉗重羅音 (…) ㉘輕囉音 (…) ㉙和音 (…) ㉚奢音 (…) ㉛沙音 (…) ㉜娑音 (…) ㉝呵音 (…) ㉞荼音 / ㉟魯 ㊱流 ㊲盧 ㊳樓 (…)⁴²⁾

이 부분 또한 보은의 설을 인용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담무참이 번역한 『대반열반경』(T. 374, pp. 413b28-414a22)을 인용한 내용이다. 이들

不利益一切衆生等字作本義也 若是第九烏音 則爲如來斷一切煩惱諸漏等字作本 即是多字從烏音出之義也 若是第十炮音 則爲大乘文義等字 作本義也 若是第十一菴音 則爲能遮一切諸不淨物於佛法中能捨一切金銀寶物等字作 本也 若是第十二痾音 則爲勝乘義等字 作本義也.”

41) T. 2702, p. 444c2-5, “次論三十八音爲本 生三五字 然教境行與十四音一種 但知音及字 自有多少不同爲異 今止出音及字之名也.”

42) T. 2702, pp. 444c5-445b6, “報恩云 第一迦音 (…) 第三十五六七八魯流盧樓四音 智者了達不應於此而生怖畏等字作本義也.”

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한자독음의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㉔𑖀(kha) : 𑖀 ㉕伽(ga) : 𑖀 ㉖若(ña) : 𑖀 ㉗婆(bha) : 𑖀 ㉘耶(ya) : 𑖀 ㉙茶(ksa) : 𑖀 등이 그것이다. 위 인용구에서 주목할 부분이 ㉚魯 ㉛流 ㉜盧 ㉝樓이다. 이 4음은 후대에 조음(助音), 별마다(別摩多) 등으로 호칭되면서 모음으로 분류시킨 글자로서, 여기에서는 ㉞r ㉟f ㊱l ㊲l의 유음(liquid)의 자음계열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³⁾ 그 이유로는 다음의 ‘3) 第三釋五十字[범자 50자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분명 14음에 포함되어 모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단지 그 쓰임새가 적기 때문에 편구성 9자의 마지막자인 ㉛茶(ksa)음 뒤에 배치한 것이다. 여기서 ㊱l와 ㊲l음은 실제로 있어서는 쓰이지 않고 ㉚魯와 ㉛流음은 한 자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㉚魯 ㉛流 ㉜盧 ㉝樓의 4음을 한 자로 함으로써 38음을 근본으로 하여 35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혜균은 ①a ②ā ③i ④r ⑤u ⑥ū ⑦e ⑧ai ⑨o ⑩au ⑪am ⑫aḥ이라는 12음, ⑬ka ⑭kha ⑮ga ⑯gha ⑰ña ⑱ca ⑲cha ⑳ja ㉑jha ㉒ña ㉓ta ㉔tha ㉕ḍa ㉖dha ㉗ṇa ㉘ṭa ㉙tha ㉚da ㉛dha ㉜na ㉝pa ㉞pha ㉟ba ㊱bha ㊲ma 등 25자와 ㊳ya ㊴ra ㊵la ㊶va ㊷sa ㊸ṣa ㊹ha ㊺kṣa 등 9자, 마지막으로 ㊻r ㊼f ㊽l ㊾l 등 4자를 순서적으로 배치하여 총 50자문의 범자를 밝히면서 이 중에서 ①-⑩과 ㉗, ㉘, ㉙, ㉚을 합하여 자본14음으로 정의하였던 것이다.⁴⁴⁾

43) 이러한 r·ṛ·l·ī 4음에 대해서는, 季羨林(1995), 『梵語佛典及漢譯佛典中四流音 rṛl 問題』, 『季羨林佛教學術論文集』, 『中華佛學研究所論叢』 4, 台北: 東初出版社, pp. 349-391을 참고하기 바람.

44) 후술하겠지만, 안연이 인용하고 있는 혜균의 실담장은 총 51로도 볼 수 있다. 안연이 『실담장』에서 혜균의 실담장을 남전과 북전의 『열반경』 모두를 인용되는 과정에서 ‘llamṛ 羅來家反’자와 ‘ksaṣ 茶盧爾反’자가 두 번 인용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3) 第三釋五十字[범자 50자에 대한 설명]’에서 다루기로 한다.

4.3. 第三釋五十字[범자 50자에 대한 설명]

이상의 50자문에 대한 배열에 이어서 혜균은 마지막으로 이들 50자문 각각에 대한 반절음 등 이들을 읽고 익히기 위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그 근본을 들고 있는 경전이 『열반경』이다. 먼저 14음에 대한 해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범자) 50자를 풀이하면, 『대반열반경』에서는 50자에 대한 오래전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 자를 설하는 근본에 半字가 있어서 이로서 法과 非法을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란 열반을 말한다. 이러한 14음을 자본이라 한다(예전에 本이란 滿字의 半으로서 곧 이 반자가 합하여 滿을 이룬다. 따라서 14음을 字本으로 삼았다. 14음은 모두 半字이다. 『열반경』 중에는 10자를 취하고 4자를 취하지 않는데, 그것은 항상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4자는 따로 분류하여 뒤에 위치시켰다).⁴⁵⁾

즉 혜균이 정의하는 14음은 반자인 a·ā·i·ī·u·ū·e·ai·o·au·r·ṛ·l·ḷ 임을 알 수 있는데, 반자로서 정법(正法)과 사법(邪法) 내지 비법(非法)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곧 14음은 앞에서 보았듯이, 만자[대열반]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는 만자를 이루기 위한 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이는 『열반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본으로서의

45) T. 2702, p. 445b7-15, “第三明五十字者 解 大般涅槃經中五十字出古舊解也 說字根本(字者胡語阿叉夜 此云無盡 字在紙墨 可得減 借此不滅以譬常住字者文之總名至於別體各自字雖總別之異 而借以爲譬半也) 半字(舊云半字者是滿字之半合兩半字則成滿字 今胡本經論 道俗皆用三種字 半者如此間之未足 滿者如此之具足也 以半字稱半人以滿字稱滿人 半滿二意在後說也) 知是法非法(舊云 字者書記萬事 事有善惡 故以字而有知法之是非也) 所言字者名涅槃(舊云 字者無盡 無盡以譬涅槃 涅槃是常故曰不流也) 是十四音名字本(舊云 本者滿字之半即此半字合 而成滿 故以十四音爲字本 十四音皆是半字 經中 取十字不取四字 以非常所用故 四字別流在後 異報恩解也).”

14음'을 혜균이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혜균의 견해는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령운의 견해⁴⁶⁾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혜균이 정의하고 있는 범자 50자문에 대한 한자독음에 대해서 안연이 『실담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를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었다.⁴⁸⁾ 여기에 현소(玄昭, 844-915)의 『실담약기』(悉曇略記, T. 2704, pp. 471-473의 표)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혜균의 50자문을 병기하여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⁴⁹⁾

46) T. 2702, p. 371c4: 慧均玄義記云 謝靈運云 (…); p. 409b25: 惠均玄義記云 宋國謝靈運云 (…)

47) 전해지는 바로는, 사령운을 중국 산수시의 시조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범어에 밝았던 인물이었다. 현재는 전해지고 있지 않는 음운관련의 저작 『十四音訓綾』가 있었는데, 혜균이 사령운의 『십사음훈서』에서 기술하는 여러 견해를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술하는 ‘사령운의 견해’는 역으로 혜균의 견해와 유사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48) 혜균의 50자에 대한 해설은 pp. 409c9-410a5와 pp. 445b16-446b16으로 『실담장』에서 두 번 인용되고 있다.

49) [표 1]에서는 반절음 내지 직음으로 표기되어 있는 범자 50자에 대한 한자독음의 현대적 구현을 위해 IPA에 의거하여 나타내보았다. 반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각의 한자는 『說文解字』, 『龍龕手鑑』, 『玉篇』 등의 한자를 영인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만 교육부 사이트 ‘異體字字典’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를 이용하였고, 또한 『經典釋文』 등의 한자독음을 살펴보기 위해 ‘최영애(2000), 『中國語音韻學』, 통나무’와 ‘김현정(2001), 『『經典釋文』反切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IPA 표기는 ‘이재돈(2007), 『中國語音韻學』, 學古房’의 ‘성모추측음가표(p. 146)’와 ‘운모추측음가표(pp. 162-163)’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표 1] 혜균의 50자문

로마자 발음과 실담법 자표기	혜균의 50자문					
	安然의 『悉曇藏』		IPA	玄昭의 『悉曇略記』		IPA
aㅈ	①	啞(=隱) 烏舸反 短聲	ʔa	①	隱 烏舸反 短聲	ʔa
āㅈ	②	阿 烏歌反 長聲	ʔa	②	阿 烏歌反 長聲	ʔa
iㅇ	③	伊 烏矣反 短聲	ʔie / ʔia	③	億 烏矣反 短聲	ʔie / ʔia
iㅈ	④	伊 烏尸反 長聲	ʔie	④	伊 烏尸反 長聲	ʔie
uㅈ	⑤	郁 烏久反 短聲	ʔio	⑤	郁 烏久反 短聲	ʔio
ūㅈ	⑥	優 烏鳩反 長聲	ʔio	⑥	優 烏鳩反 長聲	ʔio
eㅈ	⑦	啞 烏溪反	ʔiei	⑦	啞 烏漠(=溪)反	ʔak(=iei)
aiㅈ	⑧	野 烏鷄反	ʔiei	⑧	野 烏鷄反	ʔiei
oㅈ	⑨	烏 烏鳥反	ʔleo	⑨	烏 [烏鳥之鳴]	ʔleo
auㅈ	⑩	炮 烏蒙反	ʔao	⑩	炮 烏蒙反	ʔao
amㅈ	⑪	菴 (直音)菴	ʔam	⑪	菴 (直音)菴	ʔam
ahㅈ	⑫	阿 烏呵反	ʔa	⑫	阿 烏呵(=呵)反	ʔa(=ʔa)
rㅈ	⑬	魯 速中之遲	알 수 없음	⑬	魯	알 수 없음
rㅈ	⑭	流 上同	알 수 없음	⑭	流	알 수 없음
lㅈ	⑮	盧 速中之速	알 수 없음	⑮	盧	알 수 없음
lㅈ	⑯	樓 上同	알 수 없음	⑯	樓	알 수 없음
kaㅈ	⑰	迦 居寫反	kie	⑰	迦 居寫反	kie
khaㅈ	⑱	呿 墟迦反	k ^h e	⑱	呿 墟(=墟)迦反	k ^h e(=le)
gaㅈ	⑲	伽 墟迦反	ga	⑲	伽 墟(=墟)迦反	k ^h e(=le)
ghaㅈ	⑳	哱 墟迦反 重聲	ga	㉑	恒 墟(=墟)迦反 重音	k ^h e(=le)
naㅈ	㉒	俄 魚迦反	ŋe	㉒	俄 魚迦反	ŋe
caㅈ	㉓	遮 (直音)者 短聲語之	teie	㉓	車 (直音)者 短聲語之	teie
chaㅈ	㉔	車 蛆者反	tsie	㉔	車 租車反	tsie
jaㅈ	㉕	闍 (直音)社	dzie	㉕	闍 (直音)社	dzie
jhaㅈ	㉖	饒 社音 重聲	dzie	㉖	饒 (直)音散 重聲	ʃan
ñaㅈ	㉗	若 如者反	ŋzie	㉗	若 如者反	ŋzie
taㅈ	㉘	吒 豬蝦反	te	㉘	吒 豬跛(=蝦)反	ta(=te)

로마자 발음과 실담범 자표기	혜균의 50자문			
	安然의 『悉曇藏』	IPA	玄昭의 『悉曇略記』	IPA
tha ㉔	他 塘蝦反	de	㉔ 噠 墟(=塘)跋(=蝦)反	la(=de)
da ㉕	茶 除蝦反	de	㉕ 茶 除跋(=蝦)反	da(=de)
dha ㉖	袒 除蝦反 重聲	de	㉖ 袒 除跋(=蝦)反	da(=de)
na ㉗	拏 拏蝦反	ne	㉗ 拏 拏跋(=蝦)反	na
ta ㉘	多 猪舸反	ta	㉘ 他 塘可反	da
tha ㉙	他 塘可反	da	㉙ [없음]	
da ㉚	陀 (直)音柁	t ^h a	㉚ 陀 (直)音柁	t ^h a
dha ㉛	彈 (直音)柁音 重聲	t ^h a	㉛ 彈 (直音)柁音 重聲	t ^h a
na ㉜	那 乃可反	na	㉜ 那 乃可反	na
pa ㉝	波 (直)音波	pia	㉝ 波 (直)音波(=跋)	pia(=pia)
pha ㉞	頗 教舸反	ka	㉞ 頗 敷舸反	p ^h a
ba ㉟	婆 滿舸反	ma	㉟ 婆 滿舸反	ma
bha ㊱	洩 滿舸反 重聲	ma	㊱ 洩 滿舸反	ma
ma ㊲	摩 模舸反	ma	㊲ 麼 摸舸反	ma
ya ㊳	蛇 爽蝦反	ʃe	㊳ 蛇(=也) 與假反	ʃe
ra ㊴	囉 音舊反之胡盧柁 是荷羅從音取何羅二字也	ʔle	㊴ 囉 [口反] 荷羅今謂東字(=來家)反	ʔle
la ㊵	羅 盧舸反	la	㊵ 羅 盧舸反	la
va ㊶	啞 滿可反	ma	㊶ 啞 滿可反	ma
śa ㊷	奢 舒可反	ʃa	㊷ 奢 舒跋(=蝦)反	ʃa
sa ㊸	沙 舒巧反	ʃo	㊸ 沙 舒加反	ʃie
sa ㊹	娑 舒可反	ʃa	㊹ 沙 舒(=娑)可反	ʃa
ha ㊺	呵 呼舸反	xa	㊺ 呵 呼(=乎)舸反	xa
llam ㊻	羅 來家反(446a16)	le	㊻ 濫 力陷反	lem
kṣa ㊼	茶 盧爾反(410a3-4)	li	㊼ 茶 盧爾反	li

이상이 안연과 현소가 그들의 실담학 총서에서 인용하여 밝히고 있는 혜균의 50자문인데, 이들 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㉗ 전체적으로 별마다 4자[**ㅍ**·**ㅑ**·**ㅓ**·**ㅕ**]에 대한 배열에서 차이가 나고, 이에 대한 반절음 표기가 없어 정확한 발음을 가늠할 수 없다.

㉘ ①-⑫의 12음은 같은 계열의 음이고,⁵⁰⁾ **baㅍ**·**bhaㅑ**·**maㅓ** 등이 동일하게 [ma]로 발음되고 있다.

㉙ **jaㅑ**·**yaㅓ**·**saㅑ**·**llamaㅑ** 등에 대한 발음이 서로 상이하다.

㉚ 권설음 **raㅑ**에 대한 표기로서 ‘荷羅[何羅]’를 쓴 것이 특이하다.

㉛ 안연의 『실담장』에서 ㉞‘羅’와 ㉟‘茶’는 함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第三釋五十字’에서는 ㉞‘羅’까지만 나타나고, ㉟‘茶’는 다른 부분(T. 2702, 410a3-4)에서 나타나고 있다.

㉜ 안연의 ㉟과 현소의 ㉟인 ‘茶’의 반절음 ‘盧爾反’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이 [li]로 발음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㉗의 별마다 4자가 안연의 『실담장』에서는 ㉟kṣa자 다음에 배치되어 있으나, 현소의 『실담약기』에서는 ㉟ah자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 즉 안연은 별마다 4자를 『열반경』을 따른 혜균의 실담장 배치순서에 맞게 12음, 즉 모음과 분리하였고, 이와는 달리 현소는 12음 다음에 임의로 배치함으로써 별마다 4자를 16음의 범위 안으로 배치시켰던 것이다.⁵¹⁾

50) 여기서 a·ā·am·ah 4음은 모두 後舌의 [a]음이었고, “am·ah은 앞의 a와 ā 양자에서 파생된 음[餘音]이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음은 곧 끝없이 많은 글자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거듭 이러한 2자를 취함으로써 문자의 궁극을 알리는 것이다. 앞의 10자와 합하여 12자로 삼는 것이다(T. 2702, p. 409c13-16).”라고 혜균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a·ā·am·ah 4음은 모두 a음에서 연유한 것이고, 특히 am·ah 2자는 곧 12음, 즉 모음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①-⑫의 聲母가 모두 聲門破裂音[ʔ(glottal stop)]인 것이 공통점이다.

51)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배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열반경』에서와 같이 별마다 4자

그리고 이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지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魯·流·盧·樓 이 4자는 제8⁵²⁾ 속음(速音)⁵³⁾이다. 魯·流 2자는 속음 중에서도 다소 지음(遲音)이고, 盧·樓 2자는 속음 중에서도 속음이다.”⁵⁴⁾라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⁵⁵⁾ 즉 앞의 ㄹ·[魯流] 두 글자는 촉급하게 끝나는 소리[입성] 중에서 약간 길게 발음하고 뒤의 !·[盧樓] 두 글자는 앞 두 글자보다 빨리 끝 단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ㄹ에서와 같이 『실담장』에서 두 번 인용되는 과정에서 그 해설이 거의 동일하나 ‘㉔llamᄇᆞᆫ 羅(來家反)’자가 전반부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반부에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㉔kᄃᆞᆫ 茶(盧爾反)’자 전반부에만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⁵⁶⁾ 결과적으로 이들을 합해보면 모두 범자

를 이른바 자음, 즉 ㉔kᄃᆞᆫ자 뒤에 배치한 것은 별마다를 배치상 16음에서 분리시켜 자음의 부류로 배치한 것이고, 후대에 들어 『실담자기』 등은 16모음의 범위 안으로 배치시켜 이들을 모음의 부류 안에 넣어서 이들을 별마다로 호칭하였던 것이다. 비록 그 쓰임새가 많지 않아 『실담자기』에서는 설명을 줄이고 있지만 현소의 『실담약기』에서는 그 배열을 모음의 배열에 맞게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는 『열반경』 등의 배열순서에 준하여 표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안연의 『실담장』의 인용이 원전에 더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52) T. 2702, p. 410a16-27, “第一有五字 明是舌根聲 (….) 第二有五字 明是牙齒邊聲 (….) 第三吒他茶重音(….) 第四有五字 明是舌上聲 (….) 第五明唇上相搏聲也 (….) 第六總歷諸聲也 (….) 第七明遲音 (….) 魯流盧樓此四字 是第八是速音 魯流二字是速中之遲 盧樓二字是速中之速也.”

53) 疾音이라고도 한다.

54) T. 2702, 410a25-28, “魯流盧樓此四字 是第八是速音 魯流二字是速中之遲 盧樓二字是速中之速也.”

55) 이에 대하여 淨嚴(1639-1702)의 『ᄃᆞᆫ三密鈔』, T. 2710, p. 734a3에도, “慧均『玄義記』魯(速中之遲)流(同上)盧(速中之速)樓(同上).”라고 인용되고 있다.

56) 이들을 『열반경』에 근거해 이들을 살펴보면, 法顯(337?-422?)譯의 『佛說大般泥洹經』(T. 376)에는 ㉔과 연관된 ‘羅(來雅反)’가 나타나고 있고, 曇無讖譯의 『大般涅槃經』(T. 374)에서는 ㉔과 연관된 ‘啖’자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혜균이 『대승사론현의기』를 저술할 때부터 이들 남전과 북전의 『열반경』의 내용을 구분하여 그대로 집필했던 것을 안연이 『실담장』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두 문헌을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51자문이 되므로 현소는 『실담약기』에서 51자문을 혜균의 실담장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⁵⁷⁾ 끝으로 ㉔의 ‘kṣa_ṣ茶’의 한자독음과 관련하여, 지광의 『실담자기』에서는 ‘kṣa_ṣ叉자는 tshɛ(楚下反)로 tsha(楚可反)에 가깝게 발음한다.’⁵⁸⁾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kṣa_ṣ茶’의 반절음을 『경전석문』에 근거해보면 ‘de(直加反)’⁵⁹⁾로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㉔의 ‘kṣa_ṣ茶’의 한자독음과 관련된 대표적 음으로서 tshɛ(楚下反)또는 tsha(楚可反)이거나 de(直加反)임을 알 수 있는데,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는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li(盧爾反)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안연의 『실담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 밝히고 있는 이른바 혜균의 실담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서 혜균이 기술하고 있는 실담장은 ‘第1明大意[14음의 대의를 밝힘]’, ‘第2論字本[14음 등 글자의 근본을 논함]’, ‘第3釋五十字[범자 50자에 대한 설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14음은 총 50자의 범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음의 속성을 지닌, 모음의 역할을 하는 ‘자본 14음’이었다. 14음은 나머지 36자의 자음과 결합하여 수없이 많은 글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14음은 『열반경』에서와 같이 그 자체가 불성이면서 여래장으로서 일체중생에 대한 대열반으로의 가르침이라는 사상적 정의로도 나아간다. 그것은 만자가 아닌 반자로서의 기능을 14음에 부여함으로써 여래소설을 기록하는 범자의 공능에 필수적인 마지막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언어적·사상적으

57) 하지만 T. 2702, p. 410b3-c4표를 보면 혜균의 실담장은 범자 50에 한정하고 있다.

58) 智廣撰, 『悉曇字記』, T. 2132, p. 1188b14, “_ṣ叉字楚下反音近楚可反.”

59) 김현정(2001), 『經典釋文』 反切表, p. 244.

로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언어적 측면으로는 IPA표기상 12음 모두에 성모 [ʔ]음이 선행함으로써 이들 12음이 한 계열의 음임을 알 수 있고, 비록 14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2음의 마지막 am·ah 2자는 모음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음이라고 함으로써 12음 이외에는 더 이상 모음이 없다는 관점을 나타내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a아는 ‘일체제법은 생겨난 바가 없는 본연의 것’을, ā장아는 계율에 근거하는 아사리(ācārya)의 모든 ‘정행’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14음의 가르침은, 모두 a아자로부터 연유한 13자는 파괴되지 않는 여래장으로서의 삼보 등에 나타나 문·사·수 삼해 등의 수행적 양상으로도 정의되었다. 또한 혜균의 실담장에는 특히 r·ṛ·!·Ṛ자 모두 사성조 중에서 입성에 해당하는 성조로서, r·ṛ는 입성 중에서 약간 길게 발음하고 뒤의 !·Ṛ는 앞 두 글자보다 빨리 끝 단게 발음해야 하는 규정도 밝히고 있었으며, 결국 14음을 a·ā·i·ī·u·ū·e·ai·o·au·r·ṛ·!·Ṛ로 함으로써 『열반경』의 문자관을 채용하고 있었다. 또한 현전하지 않는 문헌인, 중국 남북조시대의 사령운이 지은 『십사음훈서』의 문자관 또한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십사음의』에 나타난 실담장의 전반에 대해서, 안연이 『실담장』을 집필하면서 빈번하게 인용한 것은 혜균의 실담장이 일본 실담학 초창기에 여하간의 영향을 끼친 것이 확실해 보인다.⁶⁰⁾ 또한 혜균이 저술한 『대승사론현의기』의 본거지가 만일 고대한국이었다면 한국불교사는 물론 한국 실담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은 한국불교사에서 실담장이라는 불교사상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언어(철학)적 부분이 엄연히

60) 안연 이후에 저술된 현소의 『실담약기』(T. 2704, pp. 470a5-473a4)에서는 총 8家の 실담장을 표로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이 그 8家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弘法(中天音), 宗睿(中天音), 寶月(南天音), 難陀(中天音), 慈覺(南天音), 全眞(中天音), 智廣(南天音), 惠均(東天音).”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실담장이라는 분야가 현재까지 중세한국의 문헌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므로, 만일 고대한국의 문헌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면 실담장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명백한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고 이후 고대한국에서도 실담장이 유통되었던 객관적인 문헌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약호 T. : 『大正新脩大藏經』

【자 료】

- 鳩摩羅什譯, 『摩訶般若波羅蜜經』, T. 223.
龍樹造·鳩摩羅什譯, 『大智度論』, T. 1509.
吉藏撰, 『金剛般若疏』, T. 1699.
智顛說, 『妙法蓮華經玄義』, T. 1716.
吉藏撰, 『大乘玄論』, T. 1853.
道宣撰, 『續高僧傳』, T. 2060.
玄奘譯·辯機撰, 『大唐西域記』, T. 2087.
智廣撰, 『悉曇字記』, T. 2132.
永超集, 『東域傳燈目錄』, T. 2183.
珍海撰, 『三論玄疏文義要』, T. 2299.
安然抄, 『胎藏金剛菩提心義略問答鈔』, T. 2397.
日蓮撰, 『觀心本尊抄』, T. 2692.
安然撰, 『悉曇藏』, T. 2702.
玄昭撰, 『悉曇略記』, T. 2704.
淳祐集, 『悉曇集記』, T. 2705.
明覺撰, 『悉曇要訣』, T. 2706.
淨嚴撰, 『**悉曇**三密鈔』, T. 2710.

【는 저】

① 한국어문헌

- 강대현(2016), 「안然的 『悉曇藏』에 나타난 慧均의 『大乘四論玄義記』 卷第11 「十四音義」-「十四音義」의 복원을 위한 序說-, 『한국불교학』 77, 한국불교학회.
_____(2015), 「吳音 일본전파설과 관련된 신라 金禮信에 대한 논의」,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 _____ (2015), 『『悉曇字記』의 第18章 孤合之文 연구』, 『불교학연구』 45, 불교학연구회.
- _____ (2014), 『眞言敎法の 성립에 관한 一考察』,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 _____ (2013), 『『悉曇字記』에 나타난 12摩多와 그 음의 長短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37, 불교학연구회.
- 김현정(2001), 『『經典釋文』反切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근(1996), 『吳音聲調의 朝鮮半島 經由說에 對한 一考察』, 『일본학보』 37, 한국일본학회.
- _____ (1998), 『日本國內의 字音의 傳來와 定着』-吳音·漢音を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6,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재돈(2007), 『中國語音韻學』, 學古房.
- 최연식 校注(2009),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불광출판사.
- 최영애(2000), 『中國語音韻學』, 통나무.

㉠ 기타 동양문헌

- 季羨林(1995), 『梵語佛典及漢譯佛典中四流音ṛṣṣ問題』, 『季羨林佛敎學術論文集』, 『中華佛學研究所論叢』 4, 台北: 東初出版社.
- 渡邊英明(1933), 『悉曇梵語初學者の爲めに』, 『密敎研究』 50,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敎研究會.
- 林子青(2000), 『菩提明鏡本無物 - 佛門人物制度』, 台北: 法鼓文化.
- 馬淵和夫(2006), 『悉曇章の研究』, 東京: 勉誠出版.
- 小林明美(1984), 『吳音と漢音』, 『密敎文化』 145, 和歌山: 高野山大學 密敎研究會.
- 新井白石(1760), 『同文通考』 3, 青森: 弘前市立圖書館所藏本.
- 兒玉義隆(1997), 『梵字必攜』, 大阪: 朱鷺書房.
- 饒宗頤(1993), 『梵學集』, 『中華學術叢書』, 上海: 古籍出版社.
- 周廣榮(2004), 『梵語‘悉曇章’在中國的傳播與影响』,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曹瑞泰(2007), 『中日語言文字與語音發展過程之對比分析』, 『通識研究集刊』 11, 桃園: 開南大學 通識敎育中心.
- 대만 敎育부 사이트 ‘異體字字典’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

㉔ 서양문헌

Pandey Anshuman (2012), "Proposal to Encode the Siddham Script in ISO/IEC 10646", ISO/IEC JTC1/SC2/WG2 N4294 L2/12-234R. August 1, 2012, <http://std.dkuug.dk/jtc1/sc2/wg2/docs/n4294.pdf>.

원고 접수일: 2016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1월 1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2일

Abstract

A Study on Siddhavastu of
Daeseungsaronhyeonuigi written by Hyegyun

Kang, Dae-Hyun*

There are many phonological summaries in Sanskrit about the Siddhavastu of India. In the history of Korea, references of Siddhavastu appear in *Beopgyedogichongsurok* written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in *Jineonjip* which forms part of the Buddhist Ritual Collection of the Korean Medieval Period. References of Siddhavastu in Korean texts of the Ancient Period, on the other hand, had yet to be found. However, the author was fortunate enough to discover one trace of Siddhavastu from Ancient Korea; this was the Siddhavastu of Hyegyun of the Baekje Dynasty, which was discussed by Annen in his book *Shittanzō*, which was about a series of Japanese Siddham studies. One trace of Siddhavastu is found in *Daeseungsaronhyeonuigi Sipsaeumui*, and it is possible that Hyegyun adopted the GO-On (吳·音) type of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ince Siddham (肆曇) or Siddhavastu (肆曇章) was also included in his book. Furthermore, this is the first evidence of literature for the Siddhavastu written by ancient Korean. The Siddhavastu of Hyegyun con-

* Researcher, Dept. of Buddhism, Dongguk University (Post-Doc.,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ained fourteen phones which formed the roots of the letters [a · ā · i · ī · u · ū · e · ai · o · au · ɾ · ̄ · ̄ · ̄ · ̄] in *Mahaparinirvanasutra*; he holds the same view of Dharmakṣema · Xie Lingyun etc, and also adopts the notions of the fifty letters [ka · kha etc] of *Mahaparinirvanasutra*. In particular, the author realized that a · ā are the back vowels (後舌) in the fourteen phones inside the root of letters, ɾ · ̄ · ̄ · ̄ are the entering or checked tone (入聲) in the four tones (四聲), and the last two, aṃ · aḥ are from a · ā, and after aṃ · aḥ, the ultimate vowels, no other vowels exists. As mentioned above, it was good enough for verb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in ancient times, as is proven by the citation in Annen's *Shittanzō*. Consequently, it can be firmly established that one clear piece of evidence about Siddhavastu written by an ancient Korean does indeed exist.